

‘생태계 보고’ 고흥 대항도 환경부, 4억원에 매입한다



다음달 환경부가 감정평가를 거쳐 4억원에 매입할 예정인 고흥 대항도 전경.

수려한 경관·멸종위기종 서식... 신안 부남섬 이후 두번째 매입

수려한 경관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도서인 고흥군 봉래면 예래리 대항도를 환경부가 4억 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특정도서로 지정된 뒤 건축물·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 개간·매립, 준설·간척 등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가 제한되자 섬 소유주가 환경부에 매도 요청 민원을 제기한 지 1년 만이다.

전남도는 22일 “오는 7월20일까지 감정평가를 거쳐 대항도 5만7819㎡를 매입할 예정이며, 이후 훼손 여부, 불법행위, 안내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특정도서는 전국

에 모두 206곳으로, 그 가운데 절반인 100곳이 전남에 소재하고 있다. 완도가 32곳으로 가장 많고, 신안(30), 진도(15), 여수(12), 고흥(6), 해남(3), 보성(2)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전남에서 특정도서 매입은 지난 2012년 신안군 증도면 부남섬 이후 두 번째다. 당시 환경부는 9만6507㎡의 부남섬을 2억4600만원에 사들였다. 부남섬의 해안은 배개용암(뜨거운 용암이 수중에서 분출해 생긴 길고 둥근 모양의 암석덩어리)로 그 모양이 타원형의 배개모양과 유사함과 타포니(기계적 풍화작용과 관련한 미지형으로 암벽에 별집처럼 생긴 구멍 형태의 지형) 등이 뚜렷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 곰솔군락, 굴피·동백·피나무군락 등이 있으며, 직

박구리, 방울새, 어치, 갑작도요 등 조류 14종 62개체, 애기우뚱가사리 등 해조류 7종 등이 서식하고 있다. 대항도는 지형과 경관이 우수하고, 상록활엽수림인 후박나무가 매우 발달하는 등 해양생물이 다양하고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인도이며, 낚시꾼들에게 인기다.

환경부는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2679개의 무인도서 가운데 자연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641개 도서를 대상으로 생태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 도서를 가운데 보전 가치가 높은 섬 206곳을 특정도서로 지정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면 ‘시내버스 파업’에서 계속

노조는 월 평균 24일 근무하는 운전원(4호봉 기준·8~10년 근속근무)을 기준으로 대전 시내버스 운전원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316만9000원을 받았지만 대전은 386만5000원을 받는 만큼 더 이상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도 애초 임금동결을 고수하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과정에서 조정안인 1.58%(4만6669원)를 받아들였지만 지노위 최종 조정안인 3.9%(12만2300원) 인상안은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밝혀 협상은 성사되지 못했다.

버스노조는 이후 광주지역 승강장 2210

곳 중 600곳에 시민들에게 알리는 파업 돌입 안내문을 부착하고 새벽 5시부터 시내버스 930대 중 583대의 운행을 중단했다. 다만, 비노조원들이 운행하는 시내버스 477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운행했다.

시는 비노조원 등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 791명을 시내버스 운행에 투입해 평소 운행수준(930대)의 74.51%인 693대를 운행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담양·장성·화순 등 시외노선에 투입되는 비노조원들이 노조원들을 대신해 시내버스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면서 11개 시외버스 노선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시외에서 광주로 출·퇴근하는 시·도민들은 자인의 차를 빌려타거나 택

시를 타고 출·퇴근길에 오르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또 일부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30분 이상 지연되는가 하면, 일부 시민들은 승강장에 부착된 버스노조의 안내문을 보고서야 파업 소식을 알게 되는 등 우왕좌왕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버스노조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임금인상)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대중교통을 볼모로 파업에 나선 것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하면 노사 양측이 서둘러 타협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첫 결실

27홀 골프장 개장 등 1단계 마무리... 2016년까지 3단계 사업

전남도가 남해안 관광자원 구축을 위해 추진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첫 결실을 봤다.

23일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대에 조성중인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사업 중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24일 정식 개장한다.

이 골프장 개장과 함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된다. 1단계 사업에는 골프장 조성 100실

규모의 콘도 등 사업비 3350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2010년 9월, 첫 삽을 뜬 지 3년 9개월 만에 결실을 본 셈이다. 모두 214만㎡를 개발하는 2단계, 3단계 사업은 오는 2016년까지 진행된다.

민자 등 사업비 1042억원을 들여 콘도, 호텔, 마리아, 기업연수원, 오토캠핑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도는 여수 국동항에서 1km 떨어진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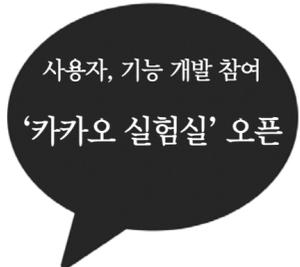
으로 다도해의 절경이 장관이다.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 사계절 골프가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사업 시행처인 전남개발공사는 24일 경도 현지에서 경도해양관광단지 개장식을 할 예정이다.

전승현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남해안 해양관광자원 개발과 전남 관광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경도해양관광단지 개장식이 근 4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며 “나머지 2, 3단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용자, 기능 개발 참여
‘카카오 실험실’ 오픈

(썬)카카오는 23일 “카카오톡에 탑재될 다양한 기능을 사용자와 함께 테스트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카카오 실험실’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카카오 실험실의 도입으로 사용자가 직접 카톡 기능의 개발 단계에 참여해 유용성을 검증하는 한편 실시간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돼 카톡 서비스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 실험실은 일단 안드로이드 버전

만 출시됐다. iOS 버전도 곧 나온다. 카카오는 이날 출시한 4.5.0 업그레이드 버전(안드로이드)에 카카오 실험실 외에 찾고 싶은 과거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내용 검색 기능도 넣었다. 채팅방 내 상대방의 검색 버튼(돋보기)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말풍선이 모두 나타난다. 이 기능은 이번 안드로이드 업그레이드 버전에서 탑재되면서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광주FC 초대감독 최만희 브라질 통신원 한-알제리전 관전평

“공·수 부조화로 경기 그르쳐”

우리팀 장점 못살린 채 전반전 대량 실점 아쉬워
16강 못 가더라도 젊은 선수 미래 보고 경기하길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좋지 못했다. 공격과 수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경기를 그르쳤다.

시작하면서부터 움직임이 활발하지 못한 게 중요한 패인이다. 수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부족했고, 앞에 있는 공격수들이 이렇다할 공격도 못해보고 전반전 시간을 보냈다. 후반들어 경기를 살리기 위해 노력 했는데 전반 3점이라는 실점을 만회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하지만 후반에 하고자 하려는 의욕을 보여줬다는 점은 위안거리다. 축구라는 것이 경기를 잘하면서 지는 경우도 있고, 아주 못하면서 이기는 경우도 있다. 오늘 중요한 경기에서 전체적으로 조화가 떨어지면서 못하고 졌다.

러시아전 때는 수비를 두껍게 짰는데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하면 노사 양측이 서둘러 타협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없었다. 공격력도 부진했다. 가운데 있는 박주영과 구자철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둔탁했다. 이정용도 마찬가지였다.

중앙 수비수·골키퍼의 부진 등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하나도 해보지도 못하고 전반전을 끝낸 점도 아쉽다.

후반전에는 조금 더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1-3의 상황에서 추가골을 넣지 못하면서 결국 4번째 실점을 했다. 상대를 흔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아쉽기는 하지만 손흥민은 칭찬해주고 싶다. 골을 넣었다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움직임이 좋았다.

벨기에와 마지막 경기가 남았는데 어려움을 내야하는 어려운 경기다. 앞에 있는 공격수들이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다득점을 노려야 한다.

수비수들은 조화로운 조직력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알제리전 첫 번째

실점상황을 들 수 있다. 상대가 힘이 있는 팀인데 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분선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어린 선수들에게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번 월드컵에 그치지 않고 다음 월드컵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경기를 잘 대비해야 한다. 지금 뛰는 선수들의 연령대가 다음 월드컵에서 중요하고 좋은 연령대다. 실망하지 말고 멀리 보고 잘 준비를 해야 한다.

또 이곳의 분위기가 한국에도 전해졌으면 한다. 경기가 열린 포르투갈레그리는 150만 인구의 도시다. 브라질이 아닌 한국과 알제리의 경기였는데도 많은 이들이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축제를 하고 경기장을 가득채우며 축구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이런 축구 풍토·문화가 경기력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월드컵이라는 큰 문화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국에도 이런 열정적인 축구 문화가 전해지면 하는 바람이다.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노안 치료 대상자입니다

노안시력교정수술로
돋보기, 안경 없는 편한 생활이 가능 합니다.

1566-9988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해결
· 노화된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바꿔서 백내장과 함께 노안해결
· 각막에 초점일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해결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NAVER **단비플라워** 등려번호

단비플라워

죽아와환3단 근조와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